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8호 【루계 제25391호】 주체105(2016)년 9월 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라말라호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각하

나는 당신이 조선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동부꾸르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105(2016)년 8월 31일 평양

9.9절에 즈음하여
인디아에서 주체사상전국토론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뉴델리에서 8월 29일 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의 기치높이 백승만을 떨치고있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에는 인디아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 그리고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이 참가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자주위업의 지도사상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써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선군사상은 가장 정당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고 칭송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계신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령도자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대성공으로 선언》, 《미국본토가 손아귀에 쥐여져있다고 강조》, 《탄도탄수중시험발사로 선군절 기념》
세계언론들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인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탄도탄의 시험결과를 통하여 조선이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렬에 들어섰다는것이 증명되였다고 하시면서 미본토와 대평양작전지대가 조선의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여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와의 전면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개발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는 김정은위원장의 지도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핵위협공갈이 도리어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이 조선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드는 경우 모든 사변적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것을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들, 해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꾸바의 프렌싸 라띠나통신은 조선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할데 대해 지적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인디아의 지 뉴스TV방송은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잠수함 《미싸일》시험발사를 대성공으로 선언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를 성공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번 시험발사를 걸고들며 또 무슨 고리타분한 수작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지만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인테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몸메르싼뜨》, 《모스꼽스끼 몸쏘몰레쯔》, 《몸쏘몰스까야 쁘라우다》, 《아르구멘띠 이 팍띠》, 《브즈글랴드》, 《올라지 보스 또크》, 로씨야 24TV방송, 렌떼레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가제따. 루, 로스발뜨, 꼬메르싼뜨, 뉴스루. 꼼, 레그늄, 쁘리모르스끼 데보르쯔뜨, 중국의 《료녕일보》,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봉황위성TV방송, 동북망, 쎌남의 신문들인 《넌전》, 《펀도이 넌전》, 중앙TV방송, 이란의 타스님통신, 수리아의 사나통신, 인디아신문 《힌두》, 인도네시아신문 《꼼빠스》, 캄보자신문 《캄보쟈 데일리》,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말라시신문 《말라 타임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니터》,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에꼴TV방송,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브라질신문 《오라 도 보보》, 베네수엘라신문 《울띠마스 노띠씨아스》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 주체사상연구 뻬네수엘라전국협회 블레찐도 《김정은령도자 미국본토가 손아귀에 쥐여져있다고 강조》, 《조선 잠수함 탄도〈미싸일〉시험발사 성공적으로 진행》, 《김정은령도자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대성공으로 선언》, 《탄도탄수중시험발사로 선군절 기념》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불멸의 통일대강》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8월 17일 《불멸의 통일대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홈페지는 조선의 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온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애국애족의 헌신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조국통일을 동에서 일대 전환기를 펼쳐주시였다.

김정일각하의 교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진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김정일각하의 로작에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인민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 통일의 새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가자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당의 구상과 결심은 우리의 실천
백두산지구건설장에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투쟁사가 수놓아진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고산지대의 문명한 산간도시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백두대지에 돌격대원들의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백두전역에 전개한 모든 려단들에서 공사진행정형과 전반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방대한 건설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삼지연군과 보천군, 혜산시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전개한 모든 려단들에서 현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각 련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만 간직하면 못해낼것이 없고 두려울것이 없다는 혁명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공사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함경북도, 황해남도련대에서 공풍건물보수와 건설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면서 전투과제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철야전투를 들이대고있다.

하천호안공사장은 각 려단의 전투력을 검증하는 하나의 대격전장으로 되고있다. 기초굴착, 제방쌓기, 타임준비 등 전반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백두산지구건설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철길공사를 맡은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돌격대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만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백두산지구의 특이한 지질조건으로 로반공사의 흙처리량은 훨씬 늘어나 작업조건은 더욱 불리해졌다.

하지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은 로반형성을 기본적으로 끝낸데 이어 철길로반다짐과 경사면정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차굴확장과 피복, 옹벽, 피암차굴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철길공사장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로태1다리공사를 맡은 평안북도련대 돌격대원들이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돌격전을 벌려 공사를 완공하였다.

황해북도련대 돌격대원들은 조건이 매우 불리한 구간에서 섬멸전을 벌려 차굴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618건설려단에서 마감건재생산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생산건물건축공사, 도로정리와 전기 및 통신선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백두산종합박물관건설기초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려단에서는 수만㎥의 기초굴착을 해제낀데 이어 백두산지구의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백두산종합박물관골조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목재, 연유보장을 앞세우고 다음단계전투에 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인민보안성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려는 충정의 한마음안고 시설물들을 중치에 어울리면서도 아담하고 규모있게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감자가루생산기지건설을 맡은 량강도려단에서는 작업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불로크와 통나무생산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자재보장을 맡은 지휘부에서는 삼지연군의 감자농사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설비, 부속품보장과 지력을 높이며 토지를 개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군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깊이갈이, 원반씨레작업, 돌, 나무뿌리 나르기, 풀베기를 비롯한 모든 지표면과제를 100%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돌격대원들의 충천한 기세에 발을 맞추어 전국각지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에로 달리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지원사업에 떨쳐나섰다.

량강도안의 여러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삽, 곡괭이를 비롯한 수십종에 수천점의 기공구, 많은 량의 부속품들을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평양시와 함경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남포시에서도 당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군중을 발동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백두산영웅청년려단안의 련대들에 수많은 생활용품들과 설비, 기공구들을 자동차에 싣고 찾아와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백두산지구를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으로 밤이 지새고 새날이 밝는 건설장마다에서는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위훈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려명거리건설장에 더 많은 자재와 설비를
남포시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남포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생산한 건설자재들과 설비들을 려명거리건설장에 우선적으로 보내주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수천t의 철근과 수백t의 인발판, 천t의 산형강을 생산하여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내주었으며 대안전기공장에서는 대형변압기생산을 끝낸데 이어 5종에 수십대의 능력이 큰 변압기를 생산하였다.

대동강전기공장에서는 6종에 수십대의 변압기생산을 끝내기 위한 생산돌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판유리생산을 다그치면서 많은 량의 열선반사유리를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것과 함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실질적인 생산성과가 이룩되게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설비보장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과제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선전선동력량을 집중시켜 현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높이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건설자재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세차게 일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전세대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시대의 선구자가 되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공정간 련계를 강화하고 로동자, 기술자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적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대안친선유리공장 일군들은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단위면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것과 함께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고있으며 열선반사유리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내줄 전기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대안전기공장에서는 일군들이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현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대동강전기공장 일군들은 자재보장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면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변압기생산장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자강력제일주의가 힘있게 발휘되는 속에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설비생산전투는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년간 배수리계획 완수
단천선박공장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과감히 떨쳐나선 단천선박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배수리계획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보다 수십척의 배를 더 수리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 기술을 도입하여 배의 중요부속품의 하나인 내롱의 수명도 훨씬 늘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는 조국의 승전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를 전례없는 배수리실적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일군들은 올해 배수리계획을 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로력과 자재, 설비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공정간 맞물림을 짜고들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배부속품보장을 앞세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였다.

배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이 모든 일터마다에서 힘차게 벌어졌다.

배를 상가대에 올려놓은 때로부터 보름안에 배수리를 끝낼 목표를 내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여러 작업공정들을 개선하여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작업능률을 높이였다.

소재직장, 카공종합작업반, 기관수리직장에서는 품이 많이 드는 중요부속품생산에 힘을 넣어 넉넉히 마련해놓았다가 제기되는 부속품들을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수리기일을 훨씬 줄여나갔다. 이곳 로동자들은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고 각종 소재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새로운 지구들과 카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이고 로력을 훨씬 절약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공장의 중요생산지표인 내롱, 피스톤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나 배수리의 질과 속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배기관의 심장인 내롱과 피스톤의 수명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나갔다. 이 과정에 플라즈마열처리법을 도입하기로 결심하고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방조를 받아 기술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플라즈마열처리기를 자체로 제작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기발한 착상으로 선반에 플라즈마열처리기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여 내롱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먼바다와 가까운바다에 물고기잡이를 나가는 배들에 도입해본 결과 공장에서 생산한 내롱의 수명이 지난 시기보다 1.8배로 늘어났다는것이 확증되여 그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부속품생산에서 일어난 혁신은 배수리전투에 떨쳐나선 공장 로동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선체수리직장 로동자들이 밤낮으로 제관작업을 벌려 선체수리를 끝마치기 바쁘게 기관수리직장 로동자들은 부속품교체조립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보름만에 배들의 수리를 결속하였다.

본사기자 리철옥

정 론

지구를 뒤흔든 기세로 500만 청년들 앞으로!

500만 영웅청년대군이 노도와 같이 일떠섰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조선청년운동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만리마시대의 전구마다에서 련일 눈부신 기적을 일으켜가는 청년명장들을 보라.

솟구치는 그 열정, 그 기백으로 저 하늘에 손을 뻗치면 별인들 못따오고 힘차게 발을 구르면 산악인들 허물지 못하랴.

슬기롭고 영용한 이 나라 청년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분수령으로, 창조와 위훈의 분화구로 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회의 력사적의의와 생활력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있으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그날에 마음세워보며 대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열의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그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또 하나의 특기할 8월사변, 미증유의 강력한 《핵폭발》이였다.

지구가 통째로 흔들렸다고 해도 우리 청년들의 이 성대하고 뜻깊은 대회합처럼 그렇듯 전인류를 격동시키지 못했을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와 체육야회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온 세계가 다 믿도록 백두산뢰성처럼 터치신 말씀 천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조선청년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수소탄을 몇개 터친것보다 더 위력하다고 그처럼 긍지높이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영웅청년대군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청년전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안겨주신 매 8월의 하늘가에 장쾌하게 메아리친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여!

이는 위대한 태양의 두리에 굳게 뭉친 500만 청년들의 존엄과 영광의 절정이였고 천하를 굽어보는 강대한 이 조선의 진짜배무기가 무엇인가를 산 화폭으로 증명해보인 일대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칠로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합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8월의 화산분출》이라고 격찬되는 청년들의 대회합은 그야말로 매일, 매 순간이 사변이고 충격이였으며 영광과 행복의 무아경이였다.

온 대회장에 눈부신 빛발을 뿌리시며 해빛처럼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 그 불멸의 태양상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의 대회장에는 백두산이 부각되여있었다.

그렇다. 우리 청년들은 바로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오늘의 빛씨산 김대장으로 높이 모시고 21세기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더 활짝 열어갈 출정식을 거행한것이다.

바라볼수록 뜻깊은 그 《백두산회의장》에서 얼마나 장쾌하고도 요란한 화산이 솟구쳤던가.

백두의 아침해돋이런듯 그처럼 기다리고 돌가까이 뵙고싶었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이 터져나온 만세의 우렁찬 함성…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원쑤들의 본거지를 죽음의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대회장이 들썩하게 불같은 맹세를 다지던 토론자들, 우리는 백두의 혈통밖에 모른다고 소리높이 웨치던 청년대표들의 목소리가 메아리되여 더욱 높이 울리는듯.

세계가 숨을 죽이고 대회장을 지켜보는 그 시각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폭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신다.

뜻깊은 새 명칭으로 불리우는 조선청년들의 붉은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현명한 령도밑에 강화발전되여온 청년동맹의 성스러운 력사와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받들려는 온 나라 청년들의 지향을 담아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대회장에 나오시여 직접 그 기발을 수여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500만 청년들의 심장의 격정을 담아 다지는 맹세가 쟁쟁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기발을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순간 그에 화답하는 청년들의 대합창인듯 장내에 폭풍치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용암의 그 분출을 인민이 아니 전세계가 다 보았다.

끝없을 모르는 만세의 폭풍과 감격의 환호를 가슴뜨겁게 호흡하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친애하는 청년대표동지들!》**이라고 뜨거운 포옹의 인사를 하시면서 마디마디 금옥같은 명제와 절출한 사상으로 일관된 뜻깊은 연설을 하시자 청년들은 또다시 일시에 파도마냥 솟구쳐 일심의 피성을 터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만세!》, 《김정은장군찬가》의 힘있는 노래소리…

참으로 력사의 신비한 일치가 아닐수 없었다.

인민은 분명 그 모습에서 보았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ㄷ, ㄷ》의 기발을 높이 날리며 위대한 수령님두리에 굳게 뭉쳐 한벌의 노래를 높이 부르던 청년투사들의 모습을.

지난 세기 90년대 사회주의종말을 떠드는 제국주의원쑤들을 신념의 철퇴로 내리치며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의 노래를 500만 총폭탄의 폭음마냥 높이 터쳤던 청년전위들의 모습을.

태양옹위의 그 노래, 그 신념이 오늘은 《김정은장군찬가》로 이어지고있으니 정녕 지구를 깨치는것과도 같은 청년의 힘, 조선의 혁폭발력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500만 영웅청년들의 충정의 대폭발이고 일편단심의 뜨거운 용암의 분출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은 조선청년들의 삶과 운명의 태양이시라면 우리의 500만 청년들은 그 빛발 받아안은 위성이런가, 태양의 그 빛과 열을 안고 불타는 위성들의 대행진마냥 5월1일경기장을 불의 천지로 만든 조선청년들의 강용한 기상 또한 지구를 깨치는 백두의 뢰성벽력이였다.

자를 대고 그은듯 그렇듯 한결같새, 한모습일수 있고 이름난 화가인들 그렇듯 아름다운 채색의 광경을 그려낼수 있을것인가. 천번만화하는 대형변화와 불굴의 신념으로 새겨가는 글발들, 체육대오와 배경대, 관람석이 통째로 물로 이글거리는 속에 온 천지를 들었다놓던 환호성…

참으로 조직성, 규률성,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이였고 그 어느 나라 청년들도 흉내낼수 없는 조선청년의 슬기와 용맹, 정신력의 총폭발이였다.

정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와 경축행사를 하나의 색조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조선로동당 기폭의 색조를 그대로 닮은 붉은색이고 기발로 표현한다면 백두의 붉은기이며 노래로 표현한다면 태양찬가, 화폭에 옮긴다면 청년강국의 살아숨쉬는 모습이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되여온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한 승리자의 대회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시위한 충정의 대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보다 힘찬 발걸음을 내짚은 총진군대회,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력사적인 대회였다.

8월의 청년폭풍, 청년대사변이 가지는 의의는 간단치 않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이 우주만리에로 뻗치는 조선의 기상과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작성해놓았던 수백페지에 달하는 제재목록, 그것이 휴지장으로 되여버리자 전쟁의 검은구름을 말아올리며 무모한 침략의 불장난질을 또다시 강행한 일촉즉발의 준엄한 시기에 조선은 바로 청년들의 대회합의 장쾌한 뢰성으로 제국주의를 소리없이 굴복시키고 승리의 봉장혼을 높이 불렀다.

이것이 또 하나의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무전무혈의 신화, 영웅청년신화가 아니겠는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태양의 두리에 굳게 뭉친 500만 영웅청년들의 단결의 힘, 충정의 힘이야말로 조선이 지닌 진짜국력이고 지구도 단숨에 깨뜨릴수 있는 사상정신적수소탄이라는것을 소리높이 실증해주었다.

전성기에서 최전성기에로, 최전성기에서 비약하여 더 높은 최전성기에로!

우리 조선청년운동이 쇠퇴와 파절을 모르고 오직 승승장구의 한길로만 내달리고있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수령의 혁명조직으로서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조선청년들의 심장속에 영원한 생명의 원동력마냥 심어주신 태양의 승결이며 그 영원한 손길이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다.

사로청(당시) 제8차대회에서 수령님의 존함을 청년동맹에 모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그리도 아쉬워하시던 우리 장군님. 그 념원을 안으시고 전인류가 난치성문제인 청년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때 우리의 조선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청년동맹기발을 승리의 군기마냥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조국땅우에 청년들의 기념탑을 세워주자고, 우리 청년들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세우자고 하시며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만은 그토록 만류하시면서도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청년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심신을 쏟으려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의 령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태양의 위업은 오직 태양만이 이룰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이 고결한 충정의 세계, 조선청년운동의 천만년미래를 내다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웅대한 사색속에서 태여난 청년동맹의 빛나는 명칭이고 두분의 태양의 존함을 모신 조선청년들의 성스러운 붉은기임을 우리는 소리높이 자랑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우리는 이 글에 지구를 깨친것과도 같은 미증유의 핵폭발력을 과시한 8월의 사변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는가에 대한 한가지 사실을 더 전하게 된다.

지난해 4월 백두산정에 오르셨던 뜻깊은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청년동맹사업에 기울여오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는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동맹대회때마다 참가하시고 7차, 8차대회때에는 두분의 수령님들을 다같이 모시였다고 하시며 9차대회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 얼마나 격정에 휩싸였던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바로 우리 원수님의 그 력사적인 백두산길에서부터 소리없이 준비되고있었음을 력사여, 기억하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군대와 함께 이렇게 청년들이 자리잡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그 하루하루가 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일지, 헌신의 일지, 믿음의 일지였다.

원쑤들과의 로성없는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느라 그처럼 분망하신 우리 원수님께서 이번 대회를 영광의 대회합으로 빛내주시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였던가.

저 하늘의 밝은 달아, 만짝이는 별들아, 너만이 알고있을 그 사연 다 전해다오.

청년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안겨주신가 그리도 마음쓰신 우리 원수님 노래 《청춘송가》를 지도해주시던 그 밤은 또 언제였더냐.

청년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청년들의 심장의 악보가 되고 명세의 구절이 되였는가 지난 8월 28일 대회장에서는 류다른 노래보급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와 청년절을 축하하여 노래 《청춘송가》를 보내주시였다는 청년동맹책임일군의 격정에 젖은 발언과 함께 노래의 선창이 있었고 그후 《다음은 한소절씩 따라부르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청년들이 노래를 따라부르는것이 아니라 어느새 통째로 노래를 기억하고 일시에 《청춘송가》의 합창을 터뜨리는것이 아닌가.

그 뜻깊은 《청춘송가》의 선률이 체육야회장에 울려퍼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 노래에 맞추어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놓았을 때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얼마나 이룰수 없는 격정에 잠기셨던가.

언제 벌써 배워주었는가고 자못 놀라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청년일군은 씩씩하게 대답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 노래가 정말 청년들의 마음에 꼭 듭니다. 그래서 저절로 흥가락이 나옵니다.》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체육야회 역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믿음과 뜨거운 손길아래 완성된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청년대표들의 숙식조건까지 헤아려보시며 물고기도 보내주시고 청년미풍선구자들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의 창조사업까지 지도해주시고 청년대표들을 그 영화의 첫 관람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게 매일매일이 명절이고 꿈만 같았건만 주신 사랑 적으신듯 대회기간에 생일을 맞는 참가자들에게 생일상까지 차려주시였으니 정녕 우리 청년들이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운명의 품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이다.

그 얼마나 들썩하게 울려퍼졌던가,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축하공연의 음악포성은.

그것은 그대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우리 당의 뜨거운 고무격려였고 500만 영웅청년대군의 심장에 불을 다는 또 하나의 힘있는 격문이였다.

자신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나아갈 청년일군들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뜻깊은 동지애의 기념사진을 남기신것이 불과 엊그제인데 천금같은 시간을 또다시 내시여 대회참가자모두를 품에 안아 한생토록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니 이 격동적인 화폭이야말로 태양과 청춘의 영원한 혼연일체를 노래하는 시대의 기념비가 아니겠는가.

청년동맹은 당 다음가는 정치조직이라고,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인 청년들은 나의 살붙이나 같다고 하시며 인류가 알지 못하는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를 펼쳐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겼기에 500만 청년대군은 앞으로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우리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그 위용 만방에 더 높이 떨칠것이다.

태양의 축복받은 조선의 청년들이여!

더 힘차게 발걸음 내짚으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그대들을 향도한다.

조선청년운동의 생명이고 불멸의 기치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더욱 높이 추켜들라.

언제나 수령의 혁명조직이라는 더없는 긍지와 영광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로 전동맹을 일색화하라. 결사옹위의 500만 백록탄이 되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서 결사보위한것처럼 그 결정관철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선봉에 서자.

200일전투의 주인공, 위훈의 창조자들도 우리 청년들이거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의 생활력과 위력이 오늘의 200일전투장에서 더욱 높이 과시되게 하자.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우리 시대의 모든 전역이 그대로 청춘들의 활무대이다.

온 나라를 청년판으로 만들어 청년들이 있는 곳 그 어디서나 기적의 신화가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태여나게 하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력사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더욱 눈부시게 빛내이자.

두려울것이 무엇이고 서슴울것이 무엇이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을 모신 청년동맹기발이 그대들앞에 나붓기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선청년운동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으로 영광떨칠것이며 우리 조국은 조선의 500만 청년들의 힘으로 마침내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달고야 말것이다.

슬기롭고 영용하며 미더운 500만 청년전위들이여!

지구를 뒤흔든 기세로 더욱 용감히 폭풍치며 앞으로!

박 옥 경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 만수대언덕에서 —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즈베끼스딴공화국 국회 상원 의장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따슈켄뜨

우즈베끼스딴공화국 국회 상원 의장

니그마띨라 뚤끼노비치 율다쉐브각하

나는 우즈베끼스딴공화국 대통령 이슬람 아브두가니에비치 까리모브각하가 병으로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9월 3일 평 양

불멸의 건국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안악군 신촌리당위원회에서

안악군 신촌리당위원회에서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농장원들속에서 노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노래보급책임자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농장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길이 체득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휴식참에 노래보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농장원들모두가 노래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을 환히 꿰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리당일군들은 자신들부터가 노래에 담긴 사상과 내용을 깊이 학습하였다.

얼마전 제11작업반에 내려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쉼참을 리용하여 농장원들과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이 땅우에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동깊이 해설하였다.

농장에서 울려는 현실과 결부하여 실효성있게 진행되는 노래보급사업은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굳은 신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농장원들은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쌀로써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렴 창 성

혁명적학습기풍과 책읽기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그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서는 요구는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 책을 많이 읽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책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선생입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책은 생활의 친근한 벗이며 귀중한 학습교재이다. 책을 많이 읽어야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높은 기술실무적자질, 문화적소양을 갖춘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할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지식의 힘에 의하여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지식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식의 정신주기가 빨라지고있는 오늘날 지식의 저장고인 책을 읽지 않고서는 발전하는 시대에 한걸음도 따라설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야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전체 인민이 마음껏 학습하고 책을 볼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읽기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누구나 책을 많이 읽어 독서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당에 충실할수도, 애국을 할수도 없으며 값높고 보람찬 삶도 누릴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책읽기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혁명실록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여기에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고귀한 투쟁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누구나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리론들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와 내용을 환히 꿰들어야 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삼아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충신들은 례외없이 책을 많이 읽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수양해나가는 사람들이다. 미나면 혁명의 길을 곧바로 걸어나가는 참된 혁명가가 되자면 모두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새겨야 한다.

책읽기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인재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지난 시기의 낡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한발자국도 따라설수 없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타산에 기초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자고 하여도, 생산공정과 경영관리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자고 하여도, 국산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자강력제일주의의 구현자가 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알아야 하며 그러자면 과학기술서적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

아는것이 힘이다. 현시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에 정통한 일군,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보배, 높은 실력으로 그 어떤 문제도 척척 풀어나가는 실천가형의 인재들은 책읽기를 자기 생활의 한부분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중에는 종업원들속에서 만능박사, 움직이는 백과사전으로 불리우고있는 일군들이 수없이 많다. 현장과 사무실을 교실로 여기고 집에서도 차안에서도 과학기술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며 기업소발전의 길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쌓그려 바치는 일군들도 있다. 경험은 누구나 혁명적인 학습기풍, 정열적인 독서기풍을 세울때 당이 맡겨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수행하는 실력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책읽기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향유해나가는 문명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은 사람들에게 사상정신적, 문화정서적량식을 주는 책읽기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독서기풍의 높이이자 문명한 인간의 정신도덕적높이라고 말할수 있다. 책읽기를 생활화하면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이 지녀야 할 고상한 도덕품성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에 기초하여 항상 세련된 풍모를 지니고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소유하고 인간적향기와 정서가 넘쳐나는 다정다감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자신을 준비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여 전체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누구나 끊임없이 책을 읽어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혁명가로 준비할 때 문명강국건설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원래 향학열이 높고 책읽기를 좋아하는 문명한 인민이다.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길이 활짝 열려져있으며 모두가 책을 마음껏 읽을수 있다. 책을 가까이하면 나라의 부흥이 빨라지고 책을 멀리하면 나라의 부흥이 떠지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높은 실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 용 일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받아안은 영광과 행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내였다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성공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 총매진하고있는 천만군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의 선군절을 앞두고 성공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로 온 나라, 온 세계를 격동시킨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혁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불패의 핵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요구, 명령지시를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백절불굴의 의지와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의의 혜마치를 억척으로 다진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을 수도 평양으로 초청하시고 최상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뜨거운 축복속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8월 28일부터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내였다.

선군으로 다져진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수령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주체적국방공업의 강화발전에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 조국이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긍지높이 아뢰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통하여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 압박의 쇠사슬을 끊고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 선군조선의 자력자강의 기상과 불패의 위용을 만방에 떨친 국방과학전사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자나깨나 그리며 꿈결에도 안기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는 무한한 행복에 겨워 그들은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당의 대해같은 은정을 또다시 받아안은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당의 자위적국방로선을 높이 받들고 선군조선의 핵무장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철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맥동쳤다.

한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될 평양체류의 나날 그들은 시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환대를 받으며 어머곳을 참관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수놓아진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참관길은 선군총대의 고향인 정전혁명사적지에로 이어졌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지를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면서 그들은 백두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오늘이 있음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솟아오른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문수물놀이장과 릉라인민유원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였다.

그들은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으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건조와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에로 이끌어주시고도 성대한 축하연과 생일상을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평양체류의 나날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혜를 받아안으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국방과학전사, 조국수호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은 그들은 2일 귀로에 올랐다.

당당한 군사대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이기 위한 핵무기병기화사업과 윤반수단개발에 모든 지혜와 정열,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갈 새로운 결의를 안고 초소로 떠나는 국방과학전사들을 환송하는 꽃물결이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졌다.

대학거리, 옥류교, 창전거리, 개선문, 통흥네거리, 련못동에 이르는 수십리 연도에 늘어선 10여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성공으로 주체조선의 승전포성을 다시한번 높이 울린 미더운 애국자들을 향해 꽃다발을 흔들며 뜨겁게 바래워주었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강위력한 주체무기개발과 생산에서 다제단으로 변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충정의 맹세를 굳게 가다듬었다.

결의목표수행을 힘있게 추동한 사회주의증산경쟁

제남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집단적혁신운동인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게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제남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에서 이를 잘 구현하였다.

200일전투에 들어서면서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70일전투때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던 일생산량보다 수십이나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것을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보충결의목표에 조아박았다.

아름찬 과제였지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배심은 든든하였다. 탄광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킬 때 결의목표를 능히 달성할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이미 70일전투때에도 초급당위원회는 결의목표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를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해결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적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며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집단적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를 위해 경쟁대상을 세분화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중요부문인 굴진소대, 채탄중대들호상간의 경쟁을 조직했었다. 이것은 경쟁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집단적경쟁열풍으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는 교대별경쟁을 중시하였다. 생산이 교대단위로 진행되는 실정에서 교대의 실적이 높아야 갱의 실적이 높아질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실효가 있었다. 굴진공, 채탄공들뿐만 아니라 교대의 모든 성원들이 경쟁에 관심을 가지고 교대실적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다같이 떨쳐나서게 되었던것이다.

경쟁대상을 세분화하여 모든 단위가 경쟁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참가자가 되게 한것은 온 탄광에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였다.

또한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여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게 하였다.

200일전투기간이 70일전투기간보다 긴것만큼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실천하자면 순간도 랑개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했다.

초급당위원회는 그 방도의 하나를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는데서 찾았다.

석탄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난문제로 제기된것은 예비채탄장이 부족한것이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초급당위원회는 지상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 350여명으로 강력한 작업굴진력량을 편성한 다음 이들로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였다. 부족되는 로력문제를 풀고 석탄생산을 쑥 높이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기본은 이 계기를 통해 탄광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석탄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여 후방과, 자재과를 비롯한 지상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호상간 작업굴진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70일전투때에 비하여 하루에 30m를 더 전진하는 놀라운 굴진실적이 기록되였다.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을 조직하니 좋은 점이 있었다.

증산의 돌파구가 열린것은 말할것도 없다. 경쟁대상들사이의 승벽심을 높여주어 최대의 실적을 내게 했다.

집단적증산경쟁열풍을 일으키기 위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잘한 점은 일군들이 대중의 경쟁의욕을 높여주는 등자가 되고 가속기가 된것이다.

우선 일군들사이의 경쟁을 널리 조직하였다. 경쟁조직자가 일군들인 조건에서 그들호상간 경쟁을 벌려야 사회주의증산경쟁이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전개될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일군들에 대한 평가도 혁신적으로 했다. 담당한 단위에서 진행한 정치사업회수를 위주로 평가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걸린 문제를 풀어준 정형을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으로 정하였다. 그것이 리행되였을 때 점수를 가산해주는 원칙을 세우게 했다.

실례가 있다.

10갱에 내려가 경쟁추진정형을 알아보던 초급당위원장 한학종동무는 탄차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여 석탄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탄차베아링만 있으면 탄차실동대수를 늘일수 있다고 본 초급당일군은 먹선시를 비롯한 여러곳을 발이 닳도록 오가며 근 100개의 탄차베아링을 해결하여 갱에 보내주었다. 하여 탄차실동대수를 10대나 늘여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게 하였다.

그무렵 5갱에 나간 지배인 정창호동무는 채탄공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 안전등이 부족하다는 제기를 받고 즉시에 해결해주어 탄부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갱을 담당한 일군들뿐만아니라 작업굴진을 맡은 지상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막장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일에 발벗고나섰다.

초급당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장영진, 윤학철동무들은 이들의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능란하게 벌려나갔다. 10일에 한번씩 진행되는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에서 일군들의 긍정적소행이 평가되였다. 이것은 일군들의 승벽심을 최대로 높여주었고 계발시켰다. 일군들모두가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분담받은 경쟁단위들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서게 했다.

지난 6월초 탄광의 수십명 일군들이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담당한 채탄중대들과 굴진소대들에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감으로써 70일전투때에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던 일생산량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게 한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일군들도 경쟁참가자라는 관점에서 담당단위의 경쟁이 고조되도록 가속기의 역할을 다하게 한것, 바로 여기에 집단적경쟁열풍을 한층 고조시킨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키기 위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잘한 점은 경쟁총화와 평가사업을 대중의 심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한것이다.

우선 총화모임을 경쟁의욕을 높여주는 마당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위해 총화모임참가대상의 폭을 넓히였다. 종전에는 단위의 당 및 행정일군들을 참가시켰다. 이렇게 되니 총화모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계기로 되지 못했다.

탄광에서 굴진소대와 채탄중대는 기본생산단위이다. 이에 맞게 초급당위원회는 총화모임에 단위의 당 및 행정일군들뿐만아니라 교대무껑장, 굴진소대장, 채탄중대장 그리고 기본생산단위들을 담당한 일군들까지 참가시켰다. 총화형식도 실적이 가장 높은 단위와 가장 낮은 단위의 일군들을 내세워 경험과 교훈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혁신적이였다. 이런 총화형식은 기본생산단위의 당 초급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앞선 단위와 대비해보면서 교훈을 찾고 분발하게 했다. 또한 채탄중대와 굴진소대를 담당한 일군들호상간에 경쟁의 불을 다는 도화선이 되였다.

경쟁평가기준도 바로 정하고 옳게 활용해나갔다.

온연중 본위주의를 낳게 하던 실적위주의 경쟁평가기준을 대담하게 혁신하였다. 다시말하여 집단주의적미풍을 발양해나갈데 대한 항목을 경쟁평가기준에 반영하고 그것이 리행되였을 때 총화에서 점수를 더 가산해주는 원칙을 세우게 했다.

6갱의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이 자기 교대가 끝난 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다음교대의 버력하차작업을 말끔히 해주어 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한 소행자료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그것을 경쟁총화에서 홍보해주었다. 즉시에 효력이 나타났다.

이것을 계기로 사회주의증산경쟁이 순수 생산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경쟁으로 전환되였다.

경쟁평가사업도 특색있게 했다. 그중의 하나가 탄광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혁신자들이 출연하는 혁신자축하무대이다.

종전에는 탄광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준비시켜 축하공연을 하는 형식으로 경쟁평가사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축하공연과 함께 혁신자들이 무대에 올라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이와 함께 따로 꾸려진 봉사기지에서 혁신자들을 위한 특별봉사를 의의있게 조직했다. 우수한 단위는 가족들도 참가시켰다. 이것은 단위들호상간의 경쟁의욕을 높여주었다. 다시말하여 앞선 단위는 다음번 경쟁에서도 1등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히게 했으며 뒤진 단위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으로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겠다는 결심을 안고 경쟁마당에 적극적으로 뛰여들게 했다. 중요하게는 가족들도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탄광일에 발벗고나서게 했다.

가장 중시한것은 정치적평가을 높이는데 기여한 소행자료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그것을 경쟁총화에서 홍보해주었다. 즉시에 효력이 나타났다.

이것을 계기로 사회주의증산경쟁이 순수 생산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경쟁으로 전환되였다.

경쟁평가사업도 특색있게 했다. 그중의 하나가 탄광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혁신자들이 출연하는 혁신자축하무대이다.

종전에는 탄광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준비시켜 축하공연을 하는 형식으로 경쟁평가사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축하공연과 함께 혁신자들이 무대에 올라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이와 함께 따로 꾸려진 봉사기지에서 혁신자들을 위한 특별봉사를 의의있게 조직했다. 우수한 단위는 가족들도 참가시켰다. 이것은 단위들호상간의 경쟁의욕을 높여주었다. 다시말하여 앞선 단위는 다음번 경쟁에서도 1등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히게 했으며 뒤진 단위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으로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겠다는 결심을 안고 경쟁마당에 적극적으로 뛰여들게 했다. 중요하게는 가족들도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탄광일에 발벗고나서게 했다.

가장 중시한것은 정치적평가

온 탄광에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일어번지는 속에 10갱과 7갱이 앞서나갔다.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추적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탄광은 200일전투에 들어와서도 높이 세운 일 및 월전투목표를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며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탄광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과 종업원들에게 더 좋은 후방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사상, 기술, 문화혁명 결의목표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단위들사이의 사회주의증산경쟁열풍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풀어나갔다.

얼마전 탄광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으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집단적혁신운동인 사회주의증산경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열쇠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석탄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는 이 탄광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모범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선무덕의 지하전역을 종횡무진하는 탄전의 별동대장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룡등탄광 6갱 고속도굴진소대장 김광일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룡등탄광 6갱 고속도굴진소대장 김광일동무는 선무덕 땅속을 종횡무진하는 타격력 강한 땅크같은 탄부로, 탄전의 별동대장으로 불리우고있다.

제대매냥을 메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그는 20여년동안 굴진공, 굴진소대장으로 일하면서 소대를 전투력이 강하고 혁명적동지애가 차넘치는 집단으로 만들어 해마다 굴진계획을 13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지난 기간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는 유망한 선무덕의 지하전역을 누벼가며 1만 4 000m의 굴진을 진행하여 240여개의 채탄장과 총 100여만t의 탄맡을 마련하였다. 이 나날 21개의 중요대상공사를 맡아 훌륭히 완성하여 룡등탄광의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어제날의 제대병사 아버지처럼

1995년말 김광일동무는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조국보위초소에서 그리고그렸던 탄전의 모습은 이전같지 않았다. 불빛 번쩍이며 딸리던 전차들과 석탄을 나르던 벨트콘베아의 동음은 찾아들고있었다. 하지만 고난속에서도 룡등사람들은 탄부의 본분을 잊지 않고있었다.

《인츰 탄광초급당위원회를 찾아가거라.》

아버지처럼 굴진공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제대된 아들의 가슴에 빛나는 전사의 영예훈장 제2급을 비롯한 4개의 훈장, 메달들을 매만지며 밤깊도록 잠못 들던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일터로 나가며 하는 말이였다.

아버지의 뒤모습을 김광일동무는 점도록 바라보았다.

어려운 시기였건만 변함없이 일터로 향하는 아버지, 선천군이 고향인 그의 아버지 김명준은 군사복무를 마치자 당의 부름을 받들고 용약 룡등탄전으로 달려와 뿌리를 내렸다. 천리마대고조로 들끓던 1960년대의 그 나날 아버지는 5갱에서 일욕심많은 굴진공으로 소문을 냈다. 속도전의 불길속에 련속천공, 련속발과로 석탄생산의 앞장을 열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몸을 상하였어도 아버지의 걸음은 보람찼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고난이 겹쳐든 그때에도 예전과 같이 한모양, 한본새였다.

그날 아침 끼니를 번지고도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를 넘려하는 아들에게 그는 말했다.

《미국놈들이 우릴 먹자고 기승을 부리는데 배는 좀 곯아도 탄전을 손간도 비워서는 안돼.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캐내는 탄전은 곧 전선이야. 석탄전선!》

석탄전선, 탄전을 가증스러운 미제를 때려눕히는 격전장으로 여기는 옛 제대군인 아버지의 말은 김광일동무의 뇌리를 쿵 울렸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가 지켜서야 할 탄전은 단순한 갱막장이 아니였다. 세대를 이어 지켜가야 할 수령결사옹위의 전선, 자주적인 삶을 지키는 전역이였다. 그처럼 중요한 초소이기에 석탄전선으로는 매일과 같이 제대군인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탄원자들이 달려오고있는것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위대한 장군님을 석탄증산으로 받들어가는 대오의 앞장에는 마땅히 제대군인이며 탄부의 아들인 자기가 서야 한다고 김광일동무는 생각하였다.

며칠후 그는 아버지가 일하던 5갱 굴진공으로 탄원하였다.

5갱에서 일한지 얼마 안되여 김광일동무는 기능공들도 혀를 두르는 솜씨있는 굴진공으로 이름날렸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해 조직된 청년돌격대 부대장이 되였고 1997년 8월에는 청년돌격대를 모체로 6갱에 새로 조직된 굴진3소대 소대장으로 임명되였다.

다부진 몸매도, 착암기술과 일욕심도 어쩌면 아버지와 그리도 신통한가고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김광일동무는 만족을 몰랐다.

두각을 나타낸 굴진3소대

1998년 1월 탄광일군들을 찾아간 김광일동무는 2단계 선무덕지구 갱내벨트콘베아수송선의 2개의 중간전동소 연선굴진을 맡아할것을 제기했다.

일군들은 반가와하면서도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그간 5갱의 탄맡조성에서 큰 몫을 잡아제낀 그들이였으나 중간전동소 연선굴진을 맡기기에는 공사량이 너무나도 엄청났다. 200m가 넘는 굴진을 해야 하고 처리해야 할 버럭량만 해도 1 000m³를 넘었다. 그것도 몇달사이에 해제끼야 할 대상이여서 일군들은 한다하는 고속도굴진소대들을 짚어보고있던중이였다.

그런데 조직된지 얼마 안되는 굴진3소대장이 당돌하게 뛰여든것이였다.

《아직은 시작이여서 실적도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허나 년한이 실적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룡등의 탄부이니다.》

어려서부터 선무덕, 선무덕하던 아버지들의 모습을 눈에 익혀왔다고, 비록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한몸이 그대로 정대가 되고 폭약이 되여서라도 2개의 중간전동소 연선굴진을 무조건 제기일에 끝내겠다고 결연히 다짐하는 반고수머리 굴진3소대장을 일군들은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탄광의 석탄생산과 관련하여 20여차례의 강령적교시를 주시고 주체66(1977)년 11월 1일에는 탄광일군들을 부르시여 탄광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집중은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선무덕지구 탄맡을 개발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사연깊은 선무덕지구에서는 그때 소문난 강동차고속도굴진소대와 같은 룡등의 관록있는 굴진소대들이 투입되여 승벽내기로 개발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선무덕지구 탄맡은 하나의 지하전역과도 같았다.

치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속에 자신있게 뛰여든 6갱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는 시작부터 탐차 제 일자리를 냈다. 김광일동무와 소대원들은 부족한 페루와 침목들을 최수리용하고 정전이 되면 함마와 정대로 발파구멍을 뚫으면서 교대없는 전투를 벌려 매일 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6갱의 굴진3소대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2개의 중간전동소 연선굴진을 본때있게 끝내는것을 보며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의 잠재력과 성장의 높이에 대해서 다는 알수 없었다.

7일낮, 7일밤의 결사전

중간전동소 연선굴진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때부터 중요하고 긴박한 과업은 의례히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에 맡겨지군 했다. 선무덕지구 룡조구공사가 긴급 제기되였을 때에도, 안심갱에서 146m의 올리굴뚫기와 2개의 물길굴뚫기가 나섰을 때에도 김광일동무와 소대원들은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어느덧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는 탄전의 별동대로 불리우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5갱구역에서 연선굴진을 하고있던 소대에는 또다시 6갱 560중단 8호사갱에서 전망굴진에 착수할데 대한 임무가 하달되였다.

지령을 받은 즉시 김광일동무는 소대원들앞에 나섰다.

《우리가 수행하게 될 전망굴진은 다음해 탄광적인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입니다. …》

서두에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광일동무의 의도를 소대원들은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런데 이설기일은 한주일이라는 소대장의 잘날같은 말에 그만 아연해졌다. 5갱구역에서 6갱의 전망굴진막장까지는 수십리, 운반할 설비, 기재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한주일이 아니라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할텐데…

하지만 소대인원수, 탄차와 대차수, 이동순차와 작업분담, 이동경로에 이르기까지 마치 이날을 미리 예전하였던것처럼 주도면밀한 이설계획과 차후전망 굴진임무를 발표하는 소대장을 바라보는 소대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실렸다.

드디여 설비이설전투가 벌어졌다. 10m², 20m²압축기들의 본체며 전동기들로부터 바람관들과 케블 등 설비, 기재들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전투는 그야말로 갱내에서의 결사전, 일찌기 볼수 없었던 설비이설강행군이였다.

낮과 밤을 꼬박기 밝혀가며 이설전투를 지휘하는 김광일동무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이는듯 했다. 한달이 걸려야 한다던 설비이설을 단 7일동안에 끝낸 즉시 소대는 전망굴진에 진입하였다.

10m²압축기를 먼저 옮겨 20m²압축기 놓을 자리를 만들고 20m²압축기를 설치하기 바쁘게 사갱굴진을 내밀면서 10m²압축기로는 올리굴뚫기를 드세게 밀려가는 그들의 전투장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마를 쳤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면밀한 전투조직과 지휘로 맡겨진 임무를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는 일욕심이 굴뚝같은 탄전의 별동대장으로 소문난 김광일동무의 사색과 실천의 폭과 깊이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생동한 현실이였던것이다.

7일동안의 결사전으로 설비이설을 끝내고 12월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한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는 이듬해 전투과제를 8월 10일까지 끝내였으며 당창건 65돐을 맞는 2010년에는 년간 굴진계획을 158.7%로 넘쳐 수행하였다. 2011년에는 전망굴진을 진행하면서 본선굴진 322m와 준비굴진 55m를 단 40일만에 끝내고 9개의 채탄장과 9만 7 500여t능력의 탄맡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상반년에만도 전망굴진 108m, 본선굴진 93m, 준비굴진 177m를 진행하여 4만 4 000여t의 탄량을 확보함으로써 대양절까지 상반년계획을 167.5%로 넘쳐 수행하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만리마속도-불타는 심장으로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를 앞두고 김광일고속도굴진소대에서는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웠다.

벨트콘베아갱건설을 최단기간에 앞당겨 끝내고 탄광적인 70일전투 석탄생산목표실현을 현실로 펼쳐놓는데 한몫하겠다는 그들의 결의는 온 탄광의 경탄을 자아냈다.

역시 선무덕을 주름잡는 별동대가 다르다고, 명돌격의 명수들이 또 장훈을 부르겠군 하고 찬사를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김광일동무는 말했다.

《오늘 당에서는 누구나 만리마를 달릴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굴지의 룡등탄전을 일으켜세운 아버지세대들처럼 우리도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으로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선물을 마련하겠습니다.》

탄광일군들은 김광일동무의 그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3년전 선무덕지구에 1 000t능력의 경안지탄사전설을 맡았을 때 그는 석달동안에 그것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밑에서 올리뚫고 우에서 수직으로 내리눌러 석달동안에 해내겠다는 엉뚱하면서도 기발하고 배심에 넘친 김광일동무를 보며 일군들은 역시 대담하고 궁냥깊은 땅크소대장이 달라 하고 혀를 둘렀다.

그때 과묵한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에서 열, 백까지 다 당정책관철전이 아닙니까.》

당의 로선과 정책은 결사관철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이런 신념과 의지를 안고 70일전투에 진입한 그는 소대원들과 함께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벨트콘베아갱건설을 훨씬 앞당겨 끝냈다.

지난 3월 27일부 《로동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등탄광에서 지난 3월 20일까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완공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던 벨트콘베아수송선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21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하였다. 굴지의 탄전의 하나인 탄광의 선무덕지구에 또 하나의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생겨남으로써 석탄운반능력을 2배로 높여 석탄생산을 본격적인 상승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는데서 돌파구를 열어놓은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실천으로 탄전의 별동대의 영예를 떨쳐가는 김광일동무와 그의 고속도굴진소대원들이였다.

새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준공된 그날 소대원들과 함께 벨트콘베아에 실리여 룡조구로 목포처럼 쏟아지는 탄의 흐름을 바라보던 김광일동무는 굳히 허리를 굽혔다. 쏟아져내리던 석탄한덩어리가 조구벽에 걸렸던것이다.

줏에 차지 않는 탄덩이를 조심히 집어 조구에 정히 던져넣는 소대장을 바라보는 당세포위원장 구석윤, 굴진공 정재원, 정정삼동무를 비롯한 소대원들의 가슴은 마냥 후대워났다.

탄전의 별동대장 김광일소대장의 진모가 그대로 비쳐지는 순간이였다.

우리는 여기에 승벽심, 일욕심이 남다르면서도 인정미, 인간성이 불보다 더 뜨거운 김광일동무가 소대원들을 유능한 착암명수들로 키우고 당원의 지함숙, 문화후생시설들과 무업기지들을 꾸리고 친부모된 심정으로 소대의 굴진공, 운전공들의 결혼식을 도맡아 차려주고 자기 집살림보다 석탄생산을 두고 고심하는 소대원들의 집꾸리기를 두팔걷고 위해준 사실들, 알아야 더 많은 탄맡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면서 소대원들을 이끌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열심히 배우고배워 기사가 되고 심한 화상을 당하면서도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수 있는 10여건의 창의고안을 하여 굴진실천에 도입한 성과들 그리고 소대의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되나게 짜고들어 예비부속품, 자재들을 남들이 부러워하게 장만해놓고도 도인민회의 대의원인 그가 도에 회의갈 때마다 나사틀개와 같은 기공구들을 마련해온 일들과 안해와 함께 현장지원의 길을 걷던 나날들을 구태여 다는 펼거하지 않았다.

자기가 태여나고 아버지세대들이 가꾸어왔으며 오늘 자기가 지켜가는 탄전과 조국번영의 검은금 석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을 지닌 김광일동무, 그의 지혜와 열정과 땀방울이 짙게 슴배인 거대한 탄맡들과 경탄을 자아내는 갱안지탄사들과 룡조구들, 갱안탄차수리장과 압축기장들, 벨트콘베아갱과 같은 지하구조물들을 땅우에서는 볼수 없다. 하지만 조국을 받드는 그의 마음은 땅속에서도 빛을 뿌리는 보석처럼 빛나는것이다.

얼마전 그는 당의 크나큰 온정속에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선군시대공로자,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값높은 칭호를 받아안은 김광일동무를 룡등의 탄부들과 일군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탄전을 더없이 사랑하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나라의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기 위해 선무덕의 지하전역에서 그처럼 헌신적으로 용의주도하고 완강하게 종횡무진하는 탄전의 별동대장이 다름아닌 김광일동무였던것이다.

본사기자 김 치 곤

새로 나온 예술영화 《우리 집이야기》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우리 집이야기》를 만들어 내놓았다.

우리 시대 청년미풍선구자들의 제일 앞자리에 떠받들리우고있는 강선땅의 《처녀어머니》를 원형으로 하고있는 영화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는 꽃나이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쳐나는 따뜻한 정, 새 세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영화의 주인공 리정아는 온정이네 형제가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그늘없이 자랄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한다.

정아는 자기의 사랑을 동정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엇서나가기만 하는 온정이를 친혈육의 심정으로 이끌어주고 군사복무를 하는 그의 오빠가 점직정을 모르고 조국보위에 성실하도록 다심한 어머니의 정으로 아이들을 돌본다.

모든 마음속고충을 스스로 이겨내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꽃피워주기 위해 애쓰는 정아의 뜨거운 진정에 감동되여 일군들과 스승들, 이웃들과 동무들도 모두 떨쳐나 온정이네 형제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바쳐간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당이 바라는대로 훌륭히 키워가는 나날에 정아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대표로 선출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를 로동당의 딸, 《처녀어머니》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다.

영화는 로동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서만 발휘될수 있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와 고상한 풍모는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황북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로씨야에 가는 인민무력성대표단 출발

륙군상장 윤동현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무력성대표단이 로씨야에서 진행되는 국제군사기술연단 《군대-2016》에 참가하기 위해 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전송하였다.

제12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도착

제12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도이췰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이딸리아, 월남, 중국 대북의 대표단들이 3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떠나갔다

김현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통화국대결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속에서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 의지를 안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을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제미동포전국련합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은 《련석회의 파탄내려는 반통일매국노 박근혜를 규탄한다》, 《자주평화통일련석회의 성사, 성공시켜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영구히 지켜내자》 등의 성명,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의 극악한 반통일적책동을 단죄하고 온 민족의 힘을 모아 련석회의를 반드시 성사시킬것을 호소하였다.

《민족통신》을 비롯한 해외동포언론들과 동포들도 《리승만의 〈단선단정〉을 릉가하는 박근혜의 련석회의거부책동》을 신랄히 규탄하면서 박근혜《정권》이 련석회의를 부정하지 말며 《싸드》대신 북남대화로 평화를 실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협동체 지역준비위원회들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가로막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폭로하면서 해외동포사회에 련석회의 지지분위기를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일본지역의 동포조직들과 개별인사들은 성명, 담화들을 통하여 지난 8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를 위한 북, 남, 해외 실무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련석회의성사를 바라는 겨레의 소망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된데 대해 적극 환영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련석회의제안을 《위장평화공세》로 헐뜯고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측성원들을 탄압하는것은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북의 련석회의개최제안에 호응해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통일대회합을 끝까지 막아보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용납 못할 반통일행위로 된다고 단죄규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를 비롯한 중국지역조직들도 성명, 담화들을 발표하고 뜻깊은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진행하기로 하였던 련석회의가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성사되지 못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애국애족의 열의와 련대단합의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물리치고 련석회의를 기어이 성사시킬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며 련석회의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해내외에서 날로 높아가는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반통화국대결의식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제안에 응해나와야 한다.

북측준비위원회는 련석회의개최를 지지하는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거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9월 3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핵잠수함들이 우리 해역주변에서 돌아치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핵잠수함들이 지난해부터 조선동해의 우리 나라 주변국제해역에서 우리 전략잠수함들에 대한 추적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있다.

보도들은 미군부가 이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있지만 미국이 우리 잠수함들을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쏘미랭전시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전략잠수함들의 대결은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미국이 그 누구의 전략잠수함들을 추적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예민한 해역들에 핵잠수함들을 들이밀고있는것은 사실상 중국과 로씨아를 겨냥한것이며 지역내에서 군사적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을 쥐기 위한 흉심의 발로이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과 관련하여 언론들은 벌써부터 동북아시아지역이 핵잠수함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수 있다고 경고하고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으로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이 떠돌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넓지 않은 해역에서 핵보유국들의 전략잠수함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그로 하여 산생되는 파국적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기계수리작업반장 정금철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수십년간 변함없이 맡은 초소를 성실하게 지켜가고있다.

책임성높은 작업반장

비록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우지 않는 초소이지만 그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한 작업반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에게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알기 쉽게 배워주면서 모두가 그 어떤 설비도 원만히 수리정비할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지난 7월 가스압송설비들이 뜻하지 않게 고장나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되였을 때에도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수리전투를 빠른 시간안에 끝냄으로써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였다.

오늘도 그는 총정의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작업반의 앞장에서 대중을 혁신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장 명 일

독자의 편지

영원히 마음속군복을 입고

제가 특류영예군인이 되여 초소를 떠난지도 10여년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하반신마비로 침상에 매인 몸이 되였어도 저의 곁에는 언제나 미더운 전우들이 있습니다.

때을 놓을세라, 주저앉을세라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고마운 혁명동지들속에는 대성은행 일군들도 있습니다.

제가 새 아빠트에 이사온 후 어느날 저의 집문을 두드리며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예군인이 이사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헌헌히 말하며 들어선 그들은 병치료도 전투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것이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당세포위원장 리주혁동지와 김주영동지를 비롯한 은행의 일군들이 그때부터 때없이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영예군인이라고,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라고 저를 부축해주고 따뜻이 이끌어주는 고마운 그 모습들을 정말이지 잊을수 없습니다.

이들은 명절과 기념일은 물론 저와 안해의 생일도 잊지 않고 꼭꼭 찾아와 기념품을 안겨주고 방안이 떠나갈듯 웃음꽃도 피워주며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고있습니다.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재와 입맛을 돋구는 별식도 마련해주며 생활의 구석구석을 다심하게 돌봐주는 따뜻한 그 손길, 멀리 지방에 있는 저의 부모들의 생활에 대해서까지도 친아들의 심정으로 왼심을 쓰는 그 마음은 고결한 전우애 그대로입니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저의 가슴은 온 나라를 이렇듯 하나의 대가정으로 가꾸어주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고마운 그 품을 받들어 한생을 변함없이 복무의 한길만을 정보로 걷는 영원한 병사로 살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평천구역 평천2동 111인민반
안 승 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과학기술성과로 옹호하고 빛내여나가자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장에서

과학의 섬에서 열린 첫 축전에 비낀 우리의 미래

지금 과학기술전당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있는 속에 열린 이번 축전과 더불어 요즘 과학의 섬—축섬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있다.

세상에 들도 없는 평양의 자랑으로 이름높고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정든 집으로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과학기술전당에서의 첫 과학기술축전!

흠탄이 뜻깊고 환희로운 서론한번째의 전국과학기술축전장을 찾아 우리는 또다시 미래행 차표를 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충정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전국과학기술축전장안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이룩한 큼직큼직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대들이 전개된 1층의 축전장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그에 못지 않게 지하의 전시장에 전개된 각 도(직할시)의 과학기술성과전시대들앞에서 서로 진지하게 경험을 나누고 열심히 배우기에 어념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미더웠다.

이번 축전의 주제는 첨단기술개발,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이다. 지난해말부터 전국의 1만 2 300여개 단위의 11만 5 600여명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청년학생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각급 과학기술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00여개의 단체들과 1 200여명이 과학의 섬에서 열리는 첫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참가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축전장에서 우리와 만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장 황영남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이번 축전이 과학기술전당에서 전례없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와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이룩된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무게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나왔습니다. 그가운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 성과들도 많습니다.》

귀중한 과학기술성과의 알찬 열매들이 축전장안을 빡 채우고있었다. 원격교육운영체계 《룡남산》, 학습자위주형동화상실시간강의 및 질의응답체계, 농업용나노기술제품의 생산과 도입, 100kW풍력발전기, 석탄과 버럭운반용콤환식삭도, 마그네샤통발의 생산과 도입, 산소열법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확립, 40t부두집함기중기제작…

이뿐이 아니다. 자동자라알깨우는기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설계, 만능고기배 《황금해》 설계 및 건조, 80마력뜨락또르, 유락중유의 공업로도입, 전자열람공간과 과학기술전시공간을 결합한 건축계획, 수자식원연색분무인쇄방법에 의한 타일생산…

이제는 주체내화물공업이 일떠섰음을 당당히 말할수 있다고 하는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김광혁동무의 야심만만한 이야기며 해산—삼지연철길건설지휘부에서 내놓은 가치있는 성과들과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의 청년대학생들이 개발한 《다국어사전》 등은 또 얼마나 좋은가. 각종 수산물부산물에서 생리활성성분들을 분리하고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고히 틀어쥐었다는 성천강출하사업소 지배인 김선실동무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도 참으로 흐뭇하였다.

미처 다 꼽기도 힘들지만 모두가 해당 부문의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하게 밑받침하고 힘있게 추동하는데 이바지하고있는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였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땐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새 세대 청년학생들의 열렬한 애국충정과 들끓는 현장의 근로자들과 일군들의 슬기와 재능과 열정이 엿보이는 귀중한 성과들이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과학기술축전인것만큼 참가자들의 승벽심 또한 간단치 않았다.

현재 축전은 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제품들을 전시하여놓고 크게 첨단과학기술, 선행공업, 기초공업, 인민생활, 기술공학부문으로 구성된 33개의 분과들로 나뉘어 성과발표와 전시경연, 새 기술, 새 제품교류봉사들을 진행한 다음 그에 대한 심사결과들을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는 축전장에서 광업채취분과의 심사에 참가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 학부장 박사 부교수 한현일동무도 만나보았다. 그는 이번 축전에 분과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여러건 나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축전에 많이 참가하였지만 이번에 나온 성과들이 과학기술적으로 가치가 크고 발표자들의 수준 또한 높아진것이 확연히 알린다고, 세상에 들도 없는 과학기술전당이 우리 사람들의 눈을 저도모르게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주는것 같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무엇인가 《뭉—》 하고 울리는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우리는 금방 발표를 끝마친 어느 한 제련소 기사장 김학철동무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미생물공학적방법으로 원가도 적고 원료원천의 제한도 없이 귀금속의 제련실수률을 높일수 있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축전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목적은 우리 제련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생물제련공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성도 가늠해보고 전국적인 학계의 객관적인 평가도 받아보자는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내세운 기업전략, 경영전략의 성공여부를 과학기술적으로 타진해보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련소에서는 이번 축전참가준비를 단단히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훌륭하고 황홀한 과학기술전당의 축전장에 들어서고보니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성과가 작게만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에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이번 축전에 참가하면서 세계를 굽어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것이 어떤것인가를 폐부로 느끼고있습니다. 다음번엔 더 훌륭한것을 내놓겠습니다. 세상에 들도 없는 과학기술전당에 어울릴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자동자라알깨우는기계를 개발한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열정적으로 경험을 교환하고 따라배우며 기어이 따라앞서고야말겠다는 축전참가자들모두의 결심이였다.

정녕 전국과학기술축전과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여 지식과 기술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 비껴있는 과학의 섬, 여기서 우리는 보았다.

머지않아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주체의 과학기술강국을,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앞당겨올 우리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행 차표를 떼고있다.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은 계속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려명희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견인력을 더욱 높여나가는 과학기술의 기관차

각 도(직할시)과학기술성과전시대들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강원도과학기술성과전시대였다. 도과학기술련맹일군인 윤도일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618세멘트공장의 전시대로 향하였다. 호기심을 자아내는 가동형의 생산공정모형앞에서 참관자들과 함께 우리는 지배인인 박사 방순일동무로부터 수직로세멘트생산공정의 굴뚝으로 나가는 먼지를 잡아 여러가지 카리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세멘트는 세멘트대로 고강도의 질을 보장하게 하면서도 공장주변에서 먼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잡은 먼지로는 농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카리비료도 생산해낼수 있다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격이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교수 박사 특청룡동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심금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었다.

《농업생산을 위해 한평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카리비료를 생산보장하는 것은 우리 나라 농사에서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세멘트공장들에서 다 제진장치를 해서 굴뚝으로 나가는 먼지를 모두 잡아 석회카리비료를 생산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618세멘트공장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수직로세멘트생산공정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카리비료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석회카리비료뿐아니라 칼리음함량이 높은 여러가지 카리비료를 생산해냄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앞으로 이 기술을 모든 수직로세멘트생산공정들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농업생산에 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는 공장기술자들의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들으며 우리는 다음전시대들에로 걸음을 옮기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문정제련소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순도가 높은 청화소다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새로 꾸리고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유가금속을 효과적으로 회수리용하는데 이바지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과 그로 하여 얻어진 각종 제품들, 과학적인 신발주분광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구두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연구개발한 발측정장치와 다양하고 멋있는 여러가지 신발제품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본 우리는 원산수산대학전시대에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산과학연구소 소장 박사 김명숙동무와 만났다. 전시된 물고기알영양면역강화제와 《남산1》호먹이첨가제를 가리키며 김명숙동무는 이번 연구성과로 하여 칠색송어기르기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됨으로써 알깨움률을 90%이상으로 높이고 갓난새끼고기의 생존률은 3배로, 증체률은 1.3배이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물절약형양어도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양어부문의 과학기술적발전을 적극 추동해갈 그의 심장의 결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이것은 결코 김명숙동무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이번 축전에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은 강원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리선희동무,

그가 만들어낸 비소성장식관은 세멘트와 모래에 색감과 혼합용시약을 첨가제로 넣어 만든 세멘트장식판이지만 무늬나 무각장식, 광택이나 굳기에 있어서 일반소성타일과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전기에네르기나 다른 열원을 전혀 쓰지 않으며 전문화된 생산공정이나 설비가 없이도 임의의 단위에서 자체로 만들수 있어 리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로동자에 불과한 제가 전국적규모에서 진행되는 이런 높은 수준의 축전에 참가하고보니 감개무량하고 비록 로동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겠다는 결의도 더 커집니다.》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그러나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다.

이 소박한 말속에 당의 숭고한 뜻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또 아박고 위대한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오늘의 두뇌전, 실력전으로 래일의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앞당겨오는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충정과 드높은 애국의 열의, 미래에 대한 굳은 신심이 력력히 어려여있었다.

하여 더욱 인상깊은 강원도과학기술성과전시대였다.

어찌 이 전시대뿐이랴.

이어 우리가 찾은 함경남도과학기술성과전시대에서도 한결같은 지향과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보온내의는 이 공장의 독점품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함흥편직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은 일반량면대환기에서도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은 공기층보온트개천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과 공정을 확립하고 새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빛나게 관철하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원료공급으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기까지 수지일성형공정의 자동화, CNC화를 실현하고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새 제품개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마시는 명주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인풍술의 맛과 향기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국내최우수제품으로 만든 자강도의 성과, 태양빛, 풍력, 수력을 종합적으로 리용한 자연에네르기분산형통합체계를 개발해낸 라선시의 성과, 연백벌에서 논벼 정보당 15t밖에 낼수 있는 새 품종육성, 재배기술과 관련한 황해남도의 성과, 우리 나라 북부고산지대인 삼지연군에서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감자와 강냉이, 콩을 비롯한 농작물들의 다수확품종들을 육성도입하고 재배기술을 확립한 량강도의 성과들…

참으로 축전장은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 가치있고 의의가 큰 제안들로 차고넘치는 우리 식 과학기술성과의 보물고였다. 그만큼 우리의 과학기술은 더 높이 비약하고있는것이다.

돌아볼수록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을 위한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시대의 벅찬 숨결이 맥박치는 축전장이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는 축전장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민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수 있는가를.

본사기자 강철웅

축전장이 안겨주는 여운

대오의 기수

이번 축전에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은 근 70명의 단위책임일군들가운데는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지배인, 기사장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페드광원에 의한 무리등설계》 성과의 주제안자는 공장지배인이고 《새형의 교류접촉기 〈교접8〉계렬개발》성과의 주제안자는 기사장이다.

당보지면에 자주 오르군하는 공장이름을 되새겨보느라니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지난번의 과학기술축전장에서 만났던 이곳 당책임일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공장의 당, 행정, 기술책임일군들모두가 과학기술축전의 열성참가자들이였던것이다.

물론 축전에서는 두 일군의 제안이 차이나는 등수로 평가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이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관철투쟁의 땐 앞장에서 모두가 함께 어깨걸고 공장을 이끌고 달리는 기수들인데야!

일이 잘되는 어느 단위에서나 대오의 앞장에는 이들과 한모습의 일군들이 서있을것이다.

《우리 제품입니다!》

쟁쟁한 목소리에 이끌려 우리가 간 곳은 신의주화장품공장전시대였다. 공장에서 생산한 《봄향기》로화방지화장품들이 화장품생산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섰다고 하는 나라의 유명한 회사에서 생산한 전형적인 로화방지화장품에 비하여 효능이 높다는것이 그 나라에서 진행된 객관적인 대비분석에 의하여 확증되였다고 공장기술일군인 오영식동무는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이 전시대뿐이 아니였다. 국산화된 다음세대 통신망설비들과 미생물분석체계, 치과임플란트치료에 필요한 이식체와 수십가지의 이식공구, 현대적인 라선식뇌CT, 건축정보모형화기술 등의 개발성과들이 전시된 여러 종합대학의 전시대들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긍지와 자부가 한껏 넘치고 있었다.

하기에 《우리 제품입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세계적수준의 돌파로 조선의 이름이 새겨진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창조물들을 안겨주겠다는 인민들과의 굳은 약속으로 안겨왔다.

박현

줄기세포화장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장품을 녀성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와 조직, 기관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에 의하여 유지되게 된다.

줄기세포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수명이 다되거나 상처 등에 의하여 없어지면 새 세포들을 만들어내여 조직과 기관을 원상회복하며 물질대사를 정상화한다.

이처럼 줄기세포는 사람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수많은 난치성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이바지한다.

줄기세포는 보통때에는 활동하지 않다가 로화나 상처 등의 원인으로 세포가 죽는 경우에만 활동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인위적으로 피부재생인자들을 주입하여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있다.

줄기세포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 피부의 로화를 막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줄기세포화장품을 만들어내놓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줄기세포화장품은 사람의 피부줄기세포를 제외에서 배양할때 만들어지는 여러 피부재생인자들과 히알루론산, 플라겐 등을 추출하여 제조한 첨단생물공학제품이다.

이 제품은 어린 때처럼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화장품인것으로 하여 뚜렷한 주름제거 및 주름방지효과를 가지고있으며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한다.

또한 멜라닌색소합성을 억제하여 높은 미백효과를 나타내며 색소세포의 탈락을 촉진시켜 주근깨, 검버섯을 없애며 피부를 맑게 해준다. 그리고 피부에서 히알루론산과 플라겐과 같은 물질들의 합성능력을 강화하여 피부보습작용도 높여준다.

일반화장품들과 달리 피부재생의 첨단기술이 도입된 줄기세포화장품은 인체의 피부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여러가지 피부재생인자들과 탄력섬유들로 제조한것으로 하여 부작용이 없으며 빠르고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줄기세포연구소 연구사들이 만든 줄기세포화장품이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태권도상식 몇가지

태권도의 기술적구성

태권도는 기본동작, 틀, 맞서기, 단련, 호신술로 구성되여있다.

태권도의 기본동작은 힘의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공격과 방어의 개별적동작들로 이루어져있다.

틀은 여러가지 공격과 방어의 동작들을 리치와 뜻에 맞게 한데 묶어놓은것을 말한다. 태권도의 틀은 24개로 되여있다.

맞서기는 틀이나 기본동작에서 배운 기술들을 실지정황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것이다.

단련은 공격 및 방어부위의 단련과 육체단련으로 이루어져있다.

호신술은 일상생활에서 맞다들수 있는 불의의 정황속에서 땔몸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태권도기술동작이다.

태권도의 경기종목

태권도경기는 틀경기, 맞서기경기, 특기경기, 위력경기, 호신경기로 구성되며 남, 녀개인전과 남, 녀단체전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틀경기는 남자개인틀, 녀자개인틀, 남자단체틀, 녀자단체틀경기로 진행한다. 맞서기경기는 남자개인맞서기, 녀자개인맞서기, 남자단체맞서기, 녀자단체맞서기경기로 진행한다.

특기경기, 위력경기도 개인경기, 단체경기로 진행한다.

호신경기는 남자호신, 녀자호신경기로 진행한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음료, 약물 개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연구사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음료, 약물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인삼나노백금수

일반적으로 백금은 촉매작용을 잘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백금은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크며 균억제, 혈액순환개선, 물질대사촉진작용 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세포로화를 방지하고 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좋은 작용을 한다.

항산화능력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물질들가운데는 비타민 C, E 그리고 셀렌 등이 있다. 백금은 이런 물질들보다 안정하며 항산화능력이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백금은 보통상태에서 흡수되기 힘들다. 그러나 백금을 나노화하면 쉽게 흡수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백금을 나노화하여 식료품과 화장품, 의약품첨가제로 많이 리용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교류소 연구사들은 연구를 심화시켜 자체의 힘과 지혜로 백금나노화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이 기술로 만든 나노백금교질용액을 리용하여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음료를 개발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삼나노백금수이다.

나노백금교질용액을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 나라 인삼의 추출물에 첨가하여 제조한 인삼나노백금수를 암, 당뇨병과 같은 난치성질병치료에 적용한 결과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암, 당뇨병, 동맥경화 등을 앓고있는 환자들이 이 음료를 일정한 기간 매일 정상적으로 마신 후에 치료효률이 높아졌으며 부작용이나 독작용이 전혀 없고 음수도 빠른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구운명반부인질염알약

녀성들속에서 발생하는 질염은 잘 낫지 않고 재발하기 쉬운 질병으로 알려져있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이 질병치료에 쓰이는 합성약물들에 의하여 병원성미생물들의 특성이 변화되고 약물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녀성호르몬환경이 파괴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장애되는것과도 관련된다고 한다.

합성약물위주의 약물들을 쓰면 일시적으로는 회복되는것 같지만 재발하기 쉽고 몸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곳 료법소 연구사들은 고려약제들을 리용하여 질염치료에 좋은 약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여러해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구운명반부인질염알약을 개발하였다. 이 알약은 항균, 항진균작용을 나타낼뿐아니라 몸안의 피로를 강화시키고 녀성호르몬환경을 보다 좋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또한 해당부위의 생리적환경을 정상상태로 보장해주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병원균들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화되게 한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여러가지 천연약제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구운명반부인질염알약은 인체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도 질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게 한다고 한다.

본사기자

록색정보기술

최근 록색정보기술이 주목을 끌고있다.

록색정보기술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정보전자기구들의 소비전력을 낮추고 그 리용효률을 높이며 환경에 유해로운 물질들의 방출을 막는 등 정보산업부문에서 에네르기절약과 환경오염방지실현에 이바지하는 정보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출현한것은 2000년대 중엽이다. 2008년에 세계적으로 콤퓨터와 손전화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은 1 000억kWh정도에 달하였고 이로 하여 간접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항공운수부문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록색정보기술에는 정보전자기구의 설계와 제조로부터 사용 및 회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생명주기의 전과정에 에네르기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속한다. 여기에는 정보전자기구에 들어가는 각종 부분품의 소비전력을 낮추기 위한 반도체요소설계 및 제조기술, 정보전자기구의 사용과정에 에네르기효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망봉사기술과 프로그람기술들, 폐기전자제품속에 들어있는 각종 물질들을 용도별로 분리, 추출하여 재리용하는 회수처리기술 등이 속한다고 한다.

본사기자

세계 여러 나라 자연풍치

베네수엘라의 까나이마국립공원

지구에서 가장 오랜 지질로 형성된 수많은 덕들, 단층의 갈라진 틈에서 흘러나와 떨어지는 여러개의 아름다운 폭포들, 베네수엘라와 여러 나라들에 펼쳐져있는 가이아나고원은 지금도 태고의 자연이 남아있는 세계에서 얼마 안되는 자연지대의 하나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고원의 어느 한 지대가 까나이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여있다.

이 지대에는 해발고가 2 810m 되는 로라이마산을 비롯하여 100개이상의 덕들로 이루어진 산들이 솟아있다.

많은 덕들로 이루어진 산줄기들에는 특이한 자연풍치로 하여 옛적의 고유한 동식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특히 이 지대에 있는 개구리는 먼 옛날부터 살아온 종의 하나이라고 한다.

해발고가 2 560m정도 되는 아우얀 데루이산에서 흘러떨어지는 안헬폭포는 높이가 1 054m로서 세계에서 제일 높다.

네팔의 써거르마타국립공원

해발고가 8 840여m인 주물랑마봉은 네팔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경에 위치하고있으며 세계최고봉을 이룬다.

이 산을 네팔에서는 써거르마타(세계의 쪽대기)라고 부른다.

줌부산의 남쪽기슭에 펼쳐진 써거르마타국립공원에는 주물랑마봉을 포함하여 해발 8 000m이상 되는 산이 4개, 6 000~7 000m되는 산이 10여개나 솟아있으며 산과 산들이 잇닿아 이룬 풍경은 참으로 거대한 조각작품을 방불케 한다.

공원일대에는 수많은 고산지대동물들이 있는데 특히 눈표범과 같은 희귀한 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선군은 자주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다

선군으로 개척되여 선군으로 전진하고 선군으로 승리해온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영광의 기치가 장엄히 나붓긴다. 지금 온 겨레의 심장속에 세차게 고동치고있는것은 우주에 달은 주체조선의 위용과 조선민족의 앙양한 전도가 선군과 하나로 잇닿아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것은 력사의 기적이며 이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선군의 길은 정의와 진리의 길, 곧바른 승리의 길이다.

정의는 오직 총대로만 지킬수 있고 진리도 오직 총대로만 말할수 있다. 힘이 없으면 정의를 찾을수도 지킬수도 없다는것은 력사의 교훈만이 아니다. 오늘 지구상에 펼쳐진 쓰라린 현실이다.

우리의 선군은 세계의 정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위력한 힘이다.

외세의 침략적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실현하자면 그것을 담보해주는 힘이 있어야 한다. 말로써는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철리이다.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담보하는 국력중의 제일국력은 다름아닌 군력이다. 비록 경제와 문화가 발전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군력이 약하면 외세의 침략앞에 불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만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그 어떤 대국의 《보호》나 국제사회의 동정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강력한 군력에 의하여서만 담보되고 지켜질수 있다.

그 무적의 힘을 키울수 있는 길이 바로 선군의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누구나 선뜻하고 걸을수 있는 길은 더더구나 아니였다. 주체조선만이 남들이 못 가는 험난한 선군의 길을 주저없이 헤쳐 풍파사나운 이 행성에서 영원한 강국의 지위를 마련하였다.

오늘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군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발악적도전을 물리치며 만리창공으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련이어 솟구쳐오르고 자주의 혁명성이 지축을 울리여 세계를 경탄케 하였다.

선군은 힘이 없던탓에 수난과 불행을 당하던 우리 민족을 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었다. 백두산대국은 정의의 보검을 높이 들고 무정의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약육강식의 만무장을 배심있게 정정하고있다. 선군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혁역제력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성과와 기적들, 나날이 희한하게 변모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그 무슨 《붕괴》의 개꿈을 꾸던 원쑤들의 면상을 통쾌하게 후려치고있다.

선군은 주체조선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이룩할수 있게 한 백승의 기치, 만능의 보검이다. 자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의 등대,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선군은 평화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평화는 인류의 간절한 념원이다. 하지만 기나긴 인류사에 평화로운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되였던가. 반동적지배계급, 착취계급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략탈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으킨 수많은 침략전쟁들로 하여 인류는 무서운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혹한 전란에 부대끼며 뼈아픈 희생을 당할수록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더욱 간절해졌지만 전쟁의 검은구름은 가시여질줄 몰랐다. 하여 인류는 항시적인 불안과 우려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를 바라보며 그 불안은 더욱 짙어만 갔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고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침략과 략탈을 생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길은 우리의 군사력, 혁역제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군을 하였다. 그 간고한 투쟁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현실이 보여주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불행한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지만 우리 인민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 원쑤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강력한 전쟁억제력앞에 굴복하여 감히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고있다.

선군은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평화의 하늘을 펼쳐주었다. 선군의 슬결로 강산이 태동하는 이 땅에서는 평화로운 건설과 창조의 세찬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끊임없이 몰려오던 침략의 불구름이 조선반도상공에서 때빠진 거품처럼 잦아버릴 때 세계는 우리의 선군이 얼마나 정당하며 위력한것인가를 다시한번 철리로 새겨안았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와 지향에는 아랑곳없이 북침을 노린 군사적도발에 분별없이 매달리고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된 위력과 병진의 기치높이 최첨단을 돌파하며 다져온 혁역제력으로 온갖 적대와 침략, 도발위협을 과감히 짓부셔나갈것이다. 선군이야말로 침략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뭉개고 영원한 평화를 안아오는 위력한 보검이다.

조국통일의 찬란한 아침을 앞당겨오는것도 바로 선군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강요로 70년이 넘도록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다. 그 어느 외세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해줄수 없다. 침략적인 외세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옳으로양으로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선군은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하면서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있다.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 애국애족의 정치가 민족성원들에게 주는 감화력은 비상히 크다.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우리 공화국을 끝없이 동경하면서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열렬히 지지하며 따르고있다.

선군의 위력과 그에 의해 백방으로 강화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있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미래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참으로 선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우리 겨레의 삶의 노래이며 원쑤들이 절망속에 아우성치게 하는 백두산민족의 억센 힘이다.

선군은 과학이며 진리이다.

이 불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내 조국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다.

허 영 민

정의의 뢰성에 덴겁한 정신병자의 지랄발광

얼마전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걸고들며 《북핵이 민족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한다.》느니 뭐니 하고 주둥이질하던 끝에 그 누구의 《도발》이 《자멸에로 이어지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하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날 역도는 《북인권개선촉구》나발을 불어대며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저들은 《피해자》로 묘사하며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린 박근혜역도의 추태에 조소를 금할수 없다.

역도의 망동은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에 질겁한 추악한 대결악녀의 마지막 발버둥질에 불과하다.

떳없이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제 머리로는 말한마디 변변히 못하는 지능미달자의 수작을 일일이 정할 필요는 없지만 명백히 해야 할것이 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침략세력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것이다.

우리의 자위적힘이 강해지는것이자 곧 민족의 안녕과 무궁번영이 확고히 담보되는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어려운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며 강위력한 혁역제력을 갖추게 된것이다. 우리가 자위의 핵방패를 굳건히 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민족의 멸살을 노린 미제에 의해 이미 핵전쟁이 터졌을것이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민족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천하의 역적무리가 바로 박근혜패당이다. 괴뢰호전광들은 남조선에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선제공격수단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상전과 함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이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저들의 죄악은 탕반우에 올려놓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걸고들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애초에 민족의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이 외세에 매달려 동족을 해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의 식민지전쟁사환군이 새빠지게 《민족의 생존권》을 운운한것자체가 하나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괴뢰역도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미국과 저들의 북침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면서 《도발》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마구 헐뜯는 악담을 늘어놓은것은 범죄적인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반인민적악정과 그로 인한 민생파탄으로 남조선을 총체적붕괴의 위기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청와대마귀할미가 이날 《북인권개선》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주절대면서 그 무슨 《촉구》니, 《공감대형성》이니 하고 독기를 내뿜은것도 우리에 대한 불수에 배긴 적대감과 체제대결아망의 발로인 동시에 분노한 민심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파멸의 함정에서 벗어나보려는 서푼짜리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패당이 제아무리 《북핵》이니, 《도발》이니, 《인권》이니 하고 악청을 돋구어도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극악무도한 호전광으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고 온 남조선땅을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무사할수 없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미국의 더러운 핵전쟁사환군이며 동족대결미치광이인 박근혜역도를 단호히 매장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매하고 암둔한 박근혜패당이 마지막까지 대결의 길, 전쟁의 길을 고집하는 이상 역적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비참한 파멸과 죽음뿐이다.

조 남 수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짓밟는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총련 중앙단체일군들 담화 발표

총련의 중앙단체일군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개최를 가로막는 박근혜패당을 규탄하여 8월 28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은 지금 평화통일협회의 모든 성원들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손잡고나가자고 동족이 내미는 손을 한사코 뿌리치고 북침핵전쟁연습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개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반도정세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이를 지지하고 실천시키려는 겨레의 열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공화국의 련석회의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여 해외에서 지역별준비위원회들과 통일적인 해외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남측에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여 회의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벌어지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얼마전 중국 심양에서 북, 남, 해외실무회의가 진행되고 기어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지를 공동보도문에 담아 내외에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련석회의개최제안에 대해 《남남갈등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니, 《위장평화공세》니, 《북핵포기가 최우선》이니 뭐니 하며 그에 응해나서려는 남조선의 각계각층에게 압력을 가해나섰으며 심양에서 진행된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측성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더우기 박근혜역도가 《8.15경축사》라는데서 반공화국대결악담을 쏟아냈으며 미제와 야합하여 동족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을지 프리덤 가디언》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으니 민족분렬의 원흉인 리승만보다 더 악독한 친미반통일분자들인 괴뢰패당을 어찌 용서하겠는가고 성토하였다.

민족의 안녕과 조국의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북과 남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마저 저버리고 사대매국과 《흡수통일》에만 환장이 된 민족반역의 무리 박근혜역적패당을 치밀어오르는 민족적의분으로 준렬히 단죄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원들은 만고죄악만을 지지르고있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책동을 전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돌격대로 나서면서 전쟁상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하의 머저리짓을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로동단체들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태일재단의 주최로 로동운동단체들이 8월 30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로동계의 단결을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1970년 전태일렬사가 박정희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한 이후에도 목숨을 건 로동자들의 항거가 끊기지 않을만큼 로동자의 처지와 로동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였다.

로동자들이 하나가 되여야 이길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민주로총과 《한국로총》,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라져서는 안된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권력과 재벌이 분할통치를 실시하면서 로동단체들사이, 로동자들사이에 각종 차별과 격차를 심각하게 강요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오늘의 위기는 로동운동의 련대와 통일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것은 로동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혈악한 로동시장을 보면 임금교섭은 물론 좋은 근무환경을 기대할수 없는것만큼 로동운동의 환경도 더 나빠질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로동운동은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로조단체를 강화하며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여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정규직로동자들과 비정규직로동자들, 녀성, 청년들의 인권문제를 기본으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싸드》배치를 강행하려는 괴뢰군부를 규탄

남조선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8월 30일 괴뢰국방부앞에서 172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고 《싸드》배치를 위해 악을 쓰며 들이치는 군부패거리들의 망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을 《싸드》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로 선정하고 현장조사까지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성주군내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한것은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군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것이며 주민들을 분렬시켜 어떻게 하나 배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제3후보지점토가 성산포대를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동안의 립장과 배치되는것으로서 남조선 그 어디에도 최적지가 없음을 인정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싸드》로 남조선을 지킬수 없으며 배치계획의 철회만이 방책이라고 하면서 《싸드》배치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하였다.

국방부가 《싸드》에 이어 배치하려는 《SM-3》미싸일도 남조선방어와 전혀 상관없는것으로서 그 도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괴뢰호전광들 최신형 대잠초계기구입을 획책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북침공격작전을 위한 최신형 대잠초계기도입을 검토하고있다.

괴뢰정부의 고위관계자가 8월 30일 이에 대해 밝혔다.

괴뢰패당은 지금 북이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뿐아니라 잠수함을 리용한 다양한 공격전술을 개발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최신형 대잠초계기 《P-8 포세이돈》 4대를 사들여오면 북의 잠수함들을 식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의 효률성을 높일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다.

친미사대매국에 환장한 괴뢰패당은 미국의 해위협에 맞선 동족의 자위적조치를 헐뜯는 한편 미국의 최신형 대잠초계기 구입을 획책하고있다고 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각종 전염병 만연

남조선 《MBC》, 《KBS》방송들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각종 전염병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다.

전라북도 순창에서 200여명의 C형간염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들중 일부가 치과치료를 받는 과정에 간염비루스에 감염되였다 한다.

8월 30일에는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일본뇌염에 걸린것으로 확증되였다.

얼마전에 콜레라가 발생하였던 경상남도 거제에서는 또다시 이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가 나타나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인 보건정책으로 남조선에서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여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유럽나라들에서 증대되는 테로공포증

유럽나라들에서 최근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로와 살륙행위가 성행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7월과 8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대규모적인 테로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프랑스의 남부휴양도시 니스에서 수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꽃불놀이를 진행하던 곳으로 한 무장괴한이 총을 쏘아대면서 대형화물자동차를 몰아가 사람들을 깔아뭉개였다.

결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80여명이 죽고 200여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다.

이어 도이췰란드 뮨헨의 한복판에서는 무장한 범죄자들이 식당과 상점을 동시에 공격하는 테로사건이 발생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한 3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휘르찌에의 가지안테쁘주에서는 쿠르드족의 결혼식이 진행되던 과정에 자폭테로공격이 일어나 54명이 죽고 약 100명이 부상당하였다.

벨지끄의 샤를로와시에서는 한 남성이 경찰서에 뛰여들어가 칼로 닥치는대로 마구 찔러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보라를베르그주에서는 달리는 렬차안에서 한 남성이 려객들에게 마구 칼부림을 하여 2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한편 도이췰란드의 에쎈후펜스타드트시에서는 음악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목표로 폭탄폭발을 시도하고있던 범죄자가 체포되고 많은 폭발물들이 압수되였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를 테로범죄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주민들이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불안속에 살고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59%가 유럽나라들에서 테로행위가 급격히 우심해지고있는데 대해 불안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실태를 놓고 관측통들은 유럽이 오늘과 같이 테로의 도가니로 된것은 바로 미국이 벌려놓은 기만적인 《반테로전》에 명목으로 추종해나선 필연적인 결과이라고 평하고있다.

중동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전대미문의 피난민사태를 초래한 미국의 《반테로전》에 지금껏 동조하여온 유럽이 오늘날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어른들은 끝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유럽이 지금 협악하게 번져지는 테로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사회에 몰아치는 이슬람교배척기운

미국정계와 언론계, 사회계의 우익세력들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과 폭행, 살인 등을 서슴지 않고있다. 이슬람교도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슬람교사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데 대한 주장이 대통령선거진영에서까지 울려나와 사회적론난을 일으키고있다. 이로 하여 미국내의 이슬람교도들속에서는 어느 순간에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가고있다.

어느 한 이슬람교단체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해동안 미국내에서 이슬람교사원을 노린 파괴 및 차별행위가 78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이래 최고의 기록이며 더우기는 2014년의 20건에 비해볼 때 거의 4배 증가한것으로 된다.

미국에서 짙게 류포되고있는 반이슬람교풍조는 미당국자들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2001년에 9.11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반테로전》의 구호를 들고 대대적인 침략전쟁에 나섰다. 과녁은 중동이였다.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여있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련결하는 교차점에 자리잡고있는 중동은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전략적요충지대였다. 더우기 이란과 수리아, 이라크 등 반미적인 나라들이 지역에서 주름을 이루고있은 사실은 이슬람교의 영향속에 있다. 이슬람교를 테로의 온상으로 락인하고 이슬람교도들을 테로분자로 표사함으로써 미국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슬람교국가들 즉 중동의 반미적인 나라들을 《반테로전》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개시하면서 그것을 《이슬람교와의 이데올로기전쟁》이라고 공포하였다. 이전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세계가 그 무슨 《이슬람교파시즘》에 직면해있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웨쳤다. 세계 여론들이 미국의 《반테로전》을 가리켜 이슬람교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현대판 《십자군원정》이라고 비난한것은 응당하다.

미지배층은 《반테로전》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강행하는 한편 국내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9.11사건이후 뉴욕경찰은 이슬람교사원참배자들, 이슬람교신봉자들이 모여드는 책방, 매대 등을 찾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였다.

《애국자법》을 공포하고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을 체포하였다. 한편 사회에 만연되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을 묵인조장하였다. 정부의 《반테로전》과 이슬람교탄압에 발맞추어 우익깡패들이 미국에서 살고있는 이슬람교도들의 집과 마을, 시설물들을 기습파괴하면서 만동을 부렸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이슬람교도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신앙을 모독하였다. 교란경을 벋기에 치넣거나 이슬람교창시자의 초상을 불태우는것과 같은 극단적인 만행들이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2012년 9월 인터네트상에 《이슬람교의 순진함》이라는 제목의 반이슬람교영화가 올라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미국에서 몰아치는 이슬람교배척바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사회적불안정이 증대되는데 위구를 느낀 당국이 《이슬람교도들도 미국의 구성원》이라느니, 《종교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너스레를 떨고 《일부 소수의 폭력적인 세력》에 의해 이슬람교가 박해를 받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기만에 불과하다.

미당국이 국내에서 이슬람교배척기운을 조장적화시키고있는것은 침략정책의 골간인 《반테로전》의 파산과 그로부터 초래된 통치위기와 관련된다. 10여년간에 걸친 《반테로전》으로 하여 미국은 심각한 인적, 물적손실을 보았으며 이에 지쳐버린 미국인들속에서는 반전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였다. 또한 《반테로전》은 미국내에서의 테로위기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몰아왔다. 미당국자들에게는 침략적인 《반테로전》의 역작용을 무마시키고 저들에게 몰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막을수 있는 방패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 방패가 바로 이슬람교였다.

이슬람교도들을 극소수 테로분자들과 동일시함으로써 《반테로전》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얻고 테로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국도의 불만에 차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보려는것이 미지배층의 속타산이다.

미국사회에 이슬람교배척기운이 날이 갈수록 더욱 짙어가고있는 근본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이 합리화되고 인종차별과 극단한 인간증오사상이 범람하는 미국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정의와 평등, 인간존중이 있을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리 철 혁

미국의 비난을 배격

로씨야외무성 공보출판국이 최근 공보를 발표하여 자기 나라의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공보는 최근 미국방성 대변인이 로씨야에서 진행된 군부대들의 전투 및 동원능력관정훈련과 관련하여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 무슨 기도를 가지고 있다느니, 이러한 훈련이 전통으로 되였다느니 뭐니 하며 불만을 늘어놓은데 대해 이를 무근거한 비난으로 일축하였다.

미국방성 대변인의 발언에는 근거도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 불만이 내재되여있다고 하면서 공보는 로씨야의 군사훈련을 놓고 난문제를 조작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무기통제분야에서 깨끗치 못한 경력을 가지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야유하였다. 미국은 로씨야를 놓고 소란을 피우기에 앞서 무기통제분야에서 저들의 의무를 똑바로 리행하는데 달라붙어야 할것이라고 공보는 강조하였다.

적들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칠 립장 천명

이란의 한 반항공기지 사령관이 8월 31일 저들의 그 어떤 침략행위도 단호히 짓부셔버릴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반항공군이 현대적인 국산제무장장비로 무장하고 그에 정통하여 적들의 침략기도를 저지파탄시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란무장력은 그 어떤 형태의 군사적위협에도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적들이 무모하게도 이란의 신성한 령토를 침공한다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인플레률 감소

페니아에서 8월에 인플레률이 6.26%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0.13% 감소된것이라고 한다.

8월 31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빈궁청산노력

스리랑카정부가 8월 31일 빈궁청산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17년을 《빈궁청산의 해》로 정하고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성급책임관리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국가적인 빈궁청산사업을 책임지고 빈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ㄱ-611429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